

제8절 쌍전2리(雙田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태백산(太白山) 준령(峻嶺)으로 둘러싸인 산간오지(山間奧地)이며 산 정상부에 있는 마을로, 동쪽에는 진조산맥(眞鳥山脈)이 있고, 쌍전1리, 소광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은 광회1리, 남쪽은 광회1, 2리, 북쪽은 소광2리와 접하고 있다. 2011년에 산촌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주민들이 공공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갈전(葛田)

1580년경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권태중(權泰重) 선비가 칩녕쿨을 걷어내고 개척한 곳이라 하여 갈전(葛田)이라 부른다. 지대가 높은 고산(高山) 분지로서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많이 끼고, 고랭지 채소(高冷地 菜蔬)의 재배적지(栽培適地)이므로 채소(菜蔬)와 약초(藥草)의 주산지이다.

2) 굴정골(掘筌谷)

옛날 사람들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 굴정(掘筌)을 파놓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밭은 많이 있으나 땅이 척박하여 모두 떠나고 몇 집만 남아있다.

3) 넓재(廣峯)

울진시장에 온 상인(商人)들이 내륙지방[봉화군 춘양시장]으로 통하는 12령(嶺) 중의 하나인 재(峯)로, 이 고개에 인가(人家)가 있어 쉬어가기도 하였다.

4) 승부터(承富基)

옛날에 승불터(承佛터)라 부르다가 승부터(承富터)로 개칭하였다. 조선 말엽에는 의병(義兵)들이 이곳에 대장간을 두고 창(槍)과 칼을 만들었다 한다.

1960년대에는 중석광(重石鑛)이 발견되어 아세아중석광업소(亞細亞重石鑛業所)에서 매월 5~6톤의 중석(重石)을 생산하였으며, 광업(鑛業)에 종사하는 인구(人口)가 늘어나면서 수십 호의 광산촌이 형성되었다. 한때는 광업진흥공사(鑛業振興公社)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資金)을 지원받아 대형(大型) 제련장(製鍊場)을 설치하고, 직원 사택을 건축하는 등 활기가

있었으나, 점차 매장량(埋葬量)이 고갈(枯渴)되면서 폐광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6세대가 거주하며 다양한 성씨가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운무터(雲霧 터)

태백산(太白山) 주맥(主脈)의 고산지대(高山地帶)며 늘 안개가 끼는 곳으로 고랭지 채소와 약초 재배의 적지다. 한때는 씨감자 생산지로 선정되어 군내에 씨감자를 공급하였다.

제9절 왕피1리(王避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왕피2리, 서쪽은 쌍전1리, 광회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산이 중첩되어 있고, 대령산(大嶺山)이 멀리 바라보이며, 영양군 수비면(首比面)과 접하고 있다. 북쪽은 통고산(通古山) 지맥(支脈)인 박달재를 넘어 12km 거리에 금강송면(西面) 소재지(所在地)가 있다. 또한 영양군(英陽郡)에서 발원(發源)한 왕피천(王避川)이 마을 중앙으로 흐르고 있으며, 왕피1리 지역이 넓어 자연부락 간의 거리가 8km나 되는 곳도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한농복구회가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왕피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

2. 마을의 역사

마을 이름을 왕피리(王避里)라 부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로 935년경에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왕자(王子)인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손씨(孫氏) 모후(母后)와 함께 이곳으로 피신(避身) 왔다가 모후(母后)가 이곳에서 별세(別世)하고 왕자(王子)는 금강산으로 갔다는 설(說)이 있다. 둘째로 1361년 원(元)나라 말엽에 한산동(韓山童) 두목(頭目) 이이조의 홍건적(紅巾賊)은 결빙기(結氷期)를 이용하여 남침(南侵)하므로, 고려 31대 공민왕